

제418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 10월 7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추가)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 | |
|-------------------------------------|---|
|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1 |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
|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2 |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 |
|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 6 |

(11시44분 개의)

○ 위원장 신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무단으로 불출석한 김태영 증인과 이승만 증인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태영 증인과 이승만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입장·도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두 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국회 경위 여러분과 입법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계속해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금일 국정감사에 추가적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증인은 권준영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이영인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 이상 두 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발언 기회요?

○조은희 위원 예.

○위원장 신정훈 이것 꼭 발언 기회 필요합니까?

○조은희 위원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한 분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 두 사람 다 주십시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저희도 다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신정훈 한 분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간사님만 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명단이요, 윤건영 간사와 제가 합의한 증인 명단입니다. 이 증인 명단에 저희들이 신청한 증인은 몇 명 없습니다. 전부 야당이 신청한 증인을 저희들이 대

폭 수용해서 합의해서 위원장님이 전체회의에서 우리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결한 명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말 지금 야당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뭔가 못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정회를 선언하고 또 새로운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 과장에 대해서 ‘숨는다’ 이렇게 야당 위원이 좀 과하게 얘기하는데요. 숨는 게 아닙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어떤 과장은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피감자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불려 나오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에 있고 또 한 분은 출장을 가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뭔가 해 보니까 미진하다, 현장에 오늘 나와라 이렇게 해서 다수당이 이렇게, 위원장이 또 민주당이시고 다수당이 갑자기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평소 위원장님이 운영해 오시던 행안위 운영의 어떤 원칙과 저는 굉장히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인을 입맛대로 소환한다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증인 의결하는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오늘 증인을 의결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증인 의결을 왜 하냐? 그것은 할리우드 액션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국감을 정쟁국감으로 만들고 보여 주기식 국감으로 하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지금 상식에 기대어서 장관이 부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게 상식에 기댈 수 있습니까? 증인은 증인이 나오겠다고 본인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증인을 그 자리에서 장관이 ‘너 나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 공무원을 증인으로 부를 때 상식으로 장관이 나와도 된다 이렇게 해서 부를 수 있으면 의결 안 하고, 그러면 의결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오래된 여야 합의를 얘기하고 국정감사라는 일주일 전에 의결하는 원칙이, 증인을 일주일 전에 의결하는 원칙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그만인 것 아닙니까? 기속력이 없는 증인 의결, 보여 주기식 증인 의결은 지금이라도 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위원 위원장님, 야당에서도 하나만……

○위원장 신정훈 잠깐만요.

보여 주기식의 증인 출석 요구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상식을 갖는 국민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아마 오천만 국민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자료제출 요구는 철저히 거부하고 또 답변도 책임 있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인 채택 요구를 하기 이전에 그 해당 공무원이 이 업무하고 지금 이 국감하고 아주, 어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더 중요하게 책임 있게 답변해야 될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달 과정이나 현재의 의사조차도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지요. 오전에 그런 정도의 요구가 있었으면 최소한 확인은, 본인의 의사라도 확인해야지요.

‘아직 현재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장관의 이 무책임한 말씀은 대단히 유감 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국감에 대해서 장관이나 행안부 담당자들이 정말 존중할 의사가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차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아까 회의 진행하는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권고해 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장님 말씀을 전했고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오후에 출석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결론적으로는 출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나올 경우에 심리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오늘은 출석이 어렵다라는 답변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제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간단히 윤건영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 윤건영 위원입니다.

왜 증인을 채택하려고 합니까? 장관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부장께서도 정확하게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야당 위원들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라면 담당 주무 과장이라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해명하고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 것고요.

전례가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전에도 보면 당일 날 와서 증인 선서하고 증인으로서 신문에 응했던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왜 숨기려고 했는지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어 보겠습니다.

여야 간사끼리 협의를 하기 전에 행안부에 이 관저 공사 담당자, 담당 과장을 알려 달라고 저희가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단 한 번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조차 알려 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숨기는 것 말고 무슨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견의드립니다.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국회가 부르면 와서 당당히 설명하고 해명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해태하려고 하면 국회는 국회가 가진 권한을 동원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국감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종합국감 때 다시 또 증인으로 채택하고요. 그날도 도망가고 피한다고 한다면 상임위 현안질의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희 위원** 좋은 말씀 하셨네, 종합국감 때 하십시오.

○**윤건영 위원** 아니, 오늘 합시다.

○**조은희 위원** 오늘은 할리우드 액션이라니까요.

○**윤건영 위원** 뭔 할리우드.....

○**조은희 위원** 안 나오겠다는 의사를 표명 했잖아요.

○**윤건영 위원** 아니, 간사님,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야당의 행동을 그렇게 편하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정리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아니요, 장관님께서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의사 표명을 했다고 말하시지 않습니까.

○**윤건영 위원** 국회에 의사도 표명을 해야지요, 당연히.

진행하시지요.

○**조은희 위원** 그런데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굳이 하시게 되니까……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나와야 될 이유가 존재하고……

○**조은희 위원** 종감 때 의결을 정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신정훈** 또 지리적 위치라든가 현재 거주하는 상황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단지 법적 절차 7일을 평계 삼아서 숨는다면 저는 종합국감까지 미루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인 일정을 잡아서라도 이 문제가 덮어서 지나갈 일이 아니다. 국민 앞에 소상히 소명해서 그리고 그 해결 방안들, 거기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규명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지 피해서 뭉개고 갈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증인이 채택되는 절차를 거치겠고 오늘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1차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라도 출석한다면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회의 일정을 잡아서라도 반드시 증인 출석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 71조와 112조에 따라서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증인 명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 22인 중 출석 16인, 찬성 14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2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계속해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금일 국정감사에 추가적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 증인은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 등 증인 29명과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위원장 등 참고인 4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나뉘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표결하기 전에 반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조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민주당과 행안위 2주차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국정감사 증인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다수 증인에 대해서는 야당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여당으로서는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증인을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것은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압박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행안위 위원 중의 한 분께서 본인의 선거법 위반 관련 경찰 소환조사를 받자 자신을 담당하는 경찰서장과—용인동부경찰서장입니다—그리고 용인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감, 용인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경찰서장과 실무자를 모조리 증인으로 소환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이 증인은 빼야 된다 했는데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낯 뜨거운 증인 신청 아닙니까? 보복 증인 소환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입법권력을 악용한 수사 검사 탄핵을 해서 신성한 국회를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들고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법 앞에 예외 없고 성역이 없어야 하는데 이 위원님께서는 특권에 대해서, 특권의 잔재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증인 신청입니다.

또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수사하고 있는 양천경찰서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이 증인만 빼자 그랬습니다. 국감국조법상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은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은 단 1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대통령의 딸로 살면 스트레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추모 기간에 이태원에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다혜 씨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거절됐습니다. 부친이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말씀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또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관련 공문 무단유출 의혹 관련한 증인, 코나아이 선수금 불법의혹 검증 관련한 증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허위진술 유도 혐의 관련한 증인, 법인카드 사적유용 부실수사 의혹 혐의 관련한 증인, 단 한 명도 용납되지 않고 민주

당이 본인 관련한 수사하는 중인, 경찰서장, 경감, 실무자 다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민 보기 부끄럽습니다. 국회의 위상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할 때 지켜지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법과 헌법의 존중을 바탕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는 겁니다. 만일 오늘 중인 채택이 수사 중인 경찰을 겁박하기 위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한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중인 강행 채택, 특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중인은 제외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정훈 윤건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 위원 윤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은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중인·참고인 채택도 어렵사리 여야 합의에 근접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번도 여야 합의에 근접해서 처리해 보려고 조은희 간사님과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다만 조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용에 근접한 선까지 갔는데 마지막 고비를 못 넘었다라는 건 방금 전의 조은희 간사님 설명에서도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합의가 안 된 것은 아쉽지만 밝힐 건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중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까지 백해룡 경정 마약 수사 사건 그건 수사 중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원칙이 훈들리면 되겠습니까?

○조은희 위원 본인 수사입니다.

○윤건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조은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윤건영 위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 행안위에서는 충분히 그 사건을 다룰 만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중인·참고인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인·참고인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는 불러서 봐야 아는 겁니다. 예단해서 국회의원의 입을 가로막는다, 야당 의원의 입을 가로막는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대명천지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하자라는 말씀 좋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 중인·참고인으로 내놓은 중인·참고인 명단을 봐 보십시오. 전부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민생과 정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겁니다. 말로는 민생국감이라고 하지만 중인 한 명, 한 명을 뜯어다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중인·참고인이 마지막 순간에 합의가 불발됐던 겁니다. 이걸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게 온당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 간사로서 중인·참고인에 대해서 합의 채택을 못 한 것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대로 그냥 저희는……

왜냐하면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번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전 이라면서요. 그래서 오늘 처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준영 위원** 간사님, 우리 나가고 그냥 내일 기자회견 하고 그러지요. 이런 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정훈** 위원들 간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경우 표결을 통해서 증인 채택의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증인 신청한 명단 한번 보세요.

○**위원장 신정훈** 표결은 국회법 제71조 그리고 112조에 따라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저희들은 표결에 불참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하루에 몇 번을 나가세요, 지금 국정감사 하면서.

○**위원장 신정훈** 배부해 드린 증인 명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 자꾸 기자회견하고 할 것이 아니고 국감을 아예 하지 말자.

○**윤건영 위원** 그러면 우리끼리 할게요.

○**용혜인 위원** 하루에 몇 번을 나가시나고요, 지금 국감장에서.

○**윤건영 위원** 맨날 나가십니까, 어떻게?

○**김종양 위원** 윤 간사님, 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해요?

○**윤건영 위원** 아니, 제가 충분히 조은희 간사님하고 상의한 거잖아요. 보고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신정훈** 배부해 드린 증인 명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배준영 위원** 정말 창피한 줄 아세요.

○**용혜인 위원** 국민의힘이야말로 창피한 줄 아세요.

○**윤건영 위원** 맨날 나가십니까, 어떻게?

○**위원장 신정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맨날 횡포를 부리니까 나가지.

○**용혜인 위원** 횡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리는 게 횡포지요.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신정훈**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4인,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전체회의는 잠시 정회하고 국정감사는 20분 후인 11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31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권준영	정부청사관리본부 노사후생과장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및 구조공사 관련	윤건영	10. 7.(월) 행정안전부
이영인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장		김성희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 서장(총경)			
전재오	용인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경감)	피의사실 유포 및 미체포 피의자 수갑 착용 관련	이상식	
유창준	용인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경사)			10. 14.(월) 경기도남부경찰청
변창범	인천광역시경찰청 형사기동대장	화성동탄경찰서장 으로 성추행 사건 입건 취소 경위 확인	양부남	
배재류	가덕중공업 대표	서울시 수상택시 관련 질의	모경종 채현일 양부남	
김영창	우진산전 대표이사	지하철 납품지연 및 증차관련 질의	이해식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이사			
정석우	이지스 자산운용회사 대표	지역현안 관련	윤건영	
박노황	TBS 이사장			
이강택	전 TBS 대표			
정태익	전 TBS 대표			
고민석	전 TBS 전략기획실장			
박동진	(주)이크루즈 대표		채현일 양부남	
김선직	(주)한강버스 대표		채현일	
김정열	(주)은성중공업 대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문제점 점검	채현일 양부남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책임 질의	위성곤	
윤정근	서울양천경찰서 서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건 수사미진 사유 확인	양부남	
고석길	서울마포경찰서 서장	이단 신교들의 무차별적 고소, 고발, 수사방해에 대한 질의		
백해룡	경찰(화곡지구대장, 경정)			10. 15.(화) 서울특별시경찰청
최세윤	검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 인천지검 주임검사			
윤태식	한국평가정보 이사회 의장 전 관세청장	세관 마약수사 무마의혹 관련	이상식	
최00	인천공항본부세관			
손00	인천공항본부세관			
조00	인천공항본부세관			
고00	인천공항본부세관			
이00	인천공항본부세관			
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진상규명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			10. 17.(목) 충청북도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의대정원 사전유출 문제 관련	이광희	

참고인(4인)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김영철	고투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 모임 비상대책위원회 총무	서울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 여부, 향후 해결 방안 등	용혜인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위원장	TBS 폐국 위기 점검	채현일	10. 15.(화) 서울특별시
이정환	TBS노동조합 위원장			
제시 린가드	FC서울	서울시설공단의 상암월드컵경기장	위성곤	

성명	직업(소속 및 직위)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요구 위원	출석요구 일시 및 감사대상기관
		잔디 관리 실태 관련		

○출석 위원(22인)

김상욱 김성희 김종양 모경종 박정현 배준영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동만 정춘생 조승환 조은희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서기영